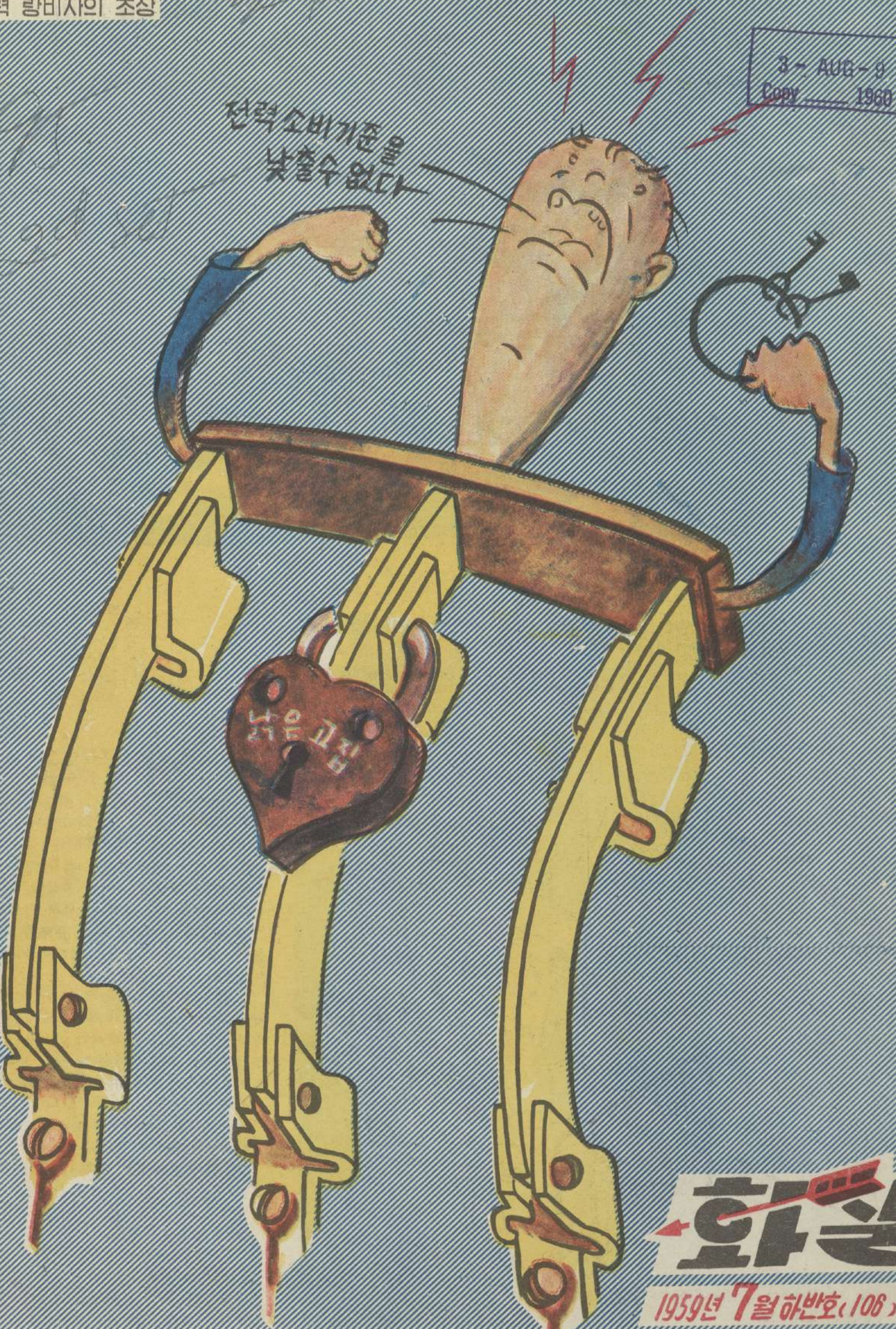
전력 랑비자의 초상

3 - AUG - 9
Copy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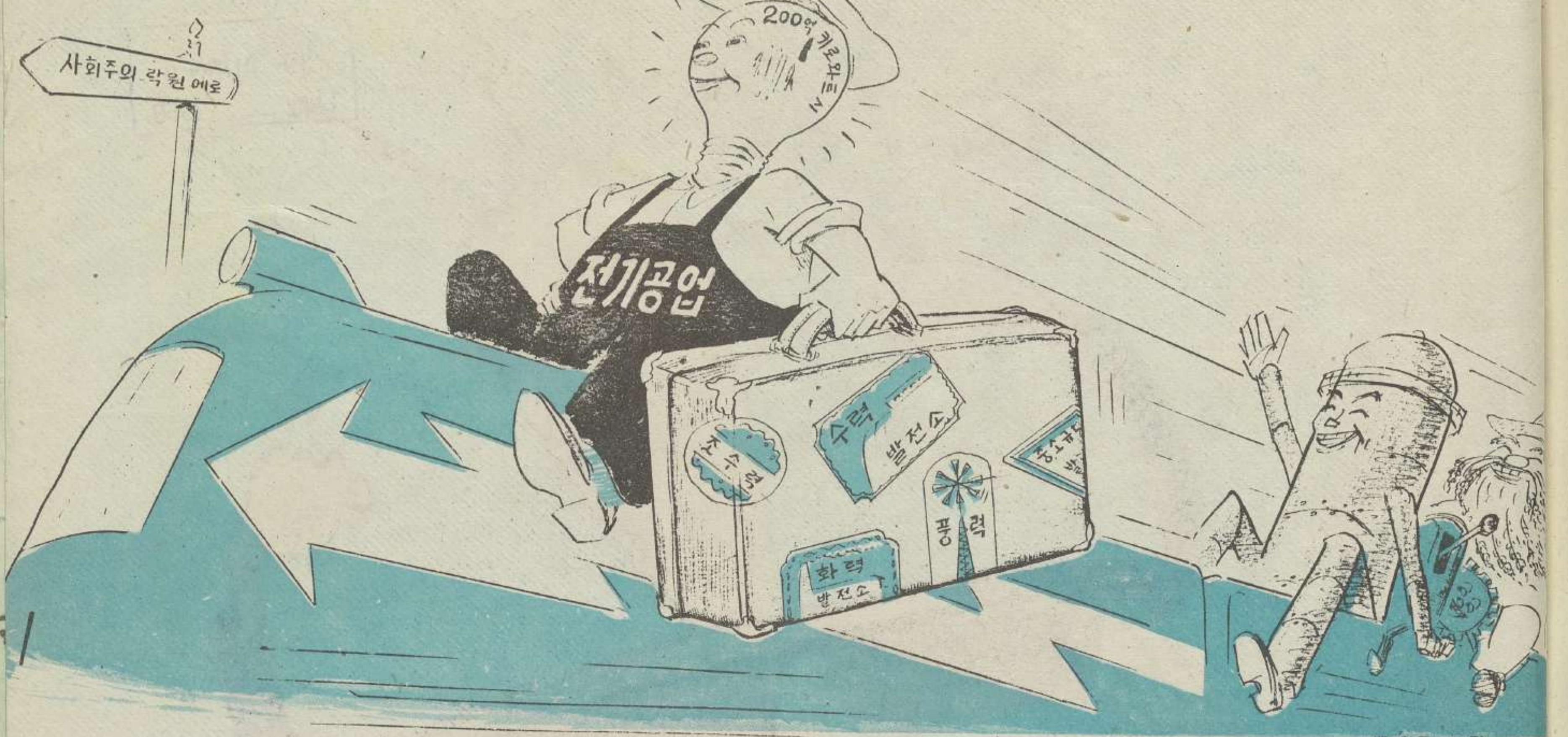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화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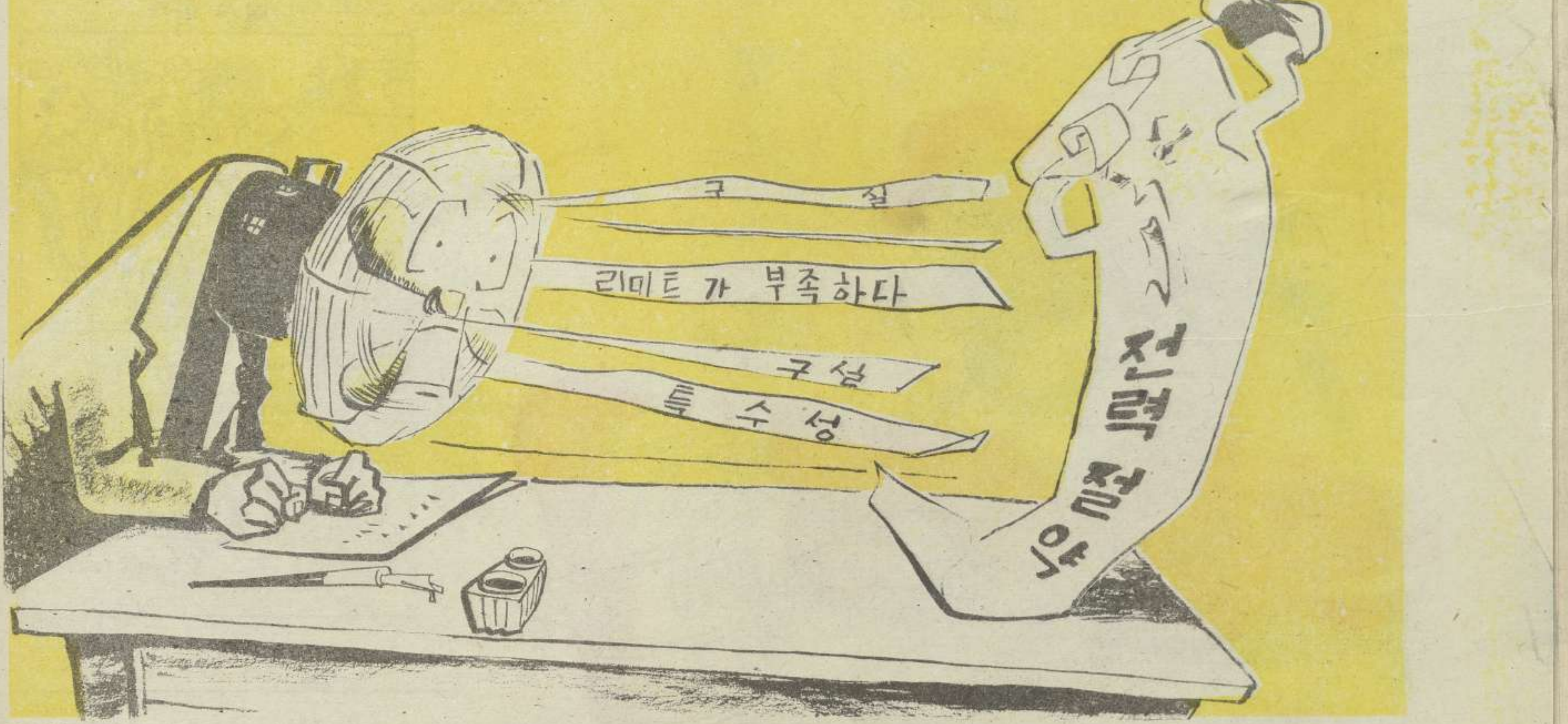
1959년 7월 하반호(106)

전기 공업을 선행 시킨다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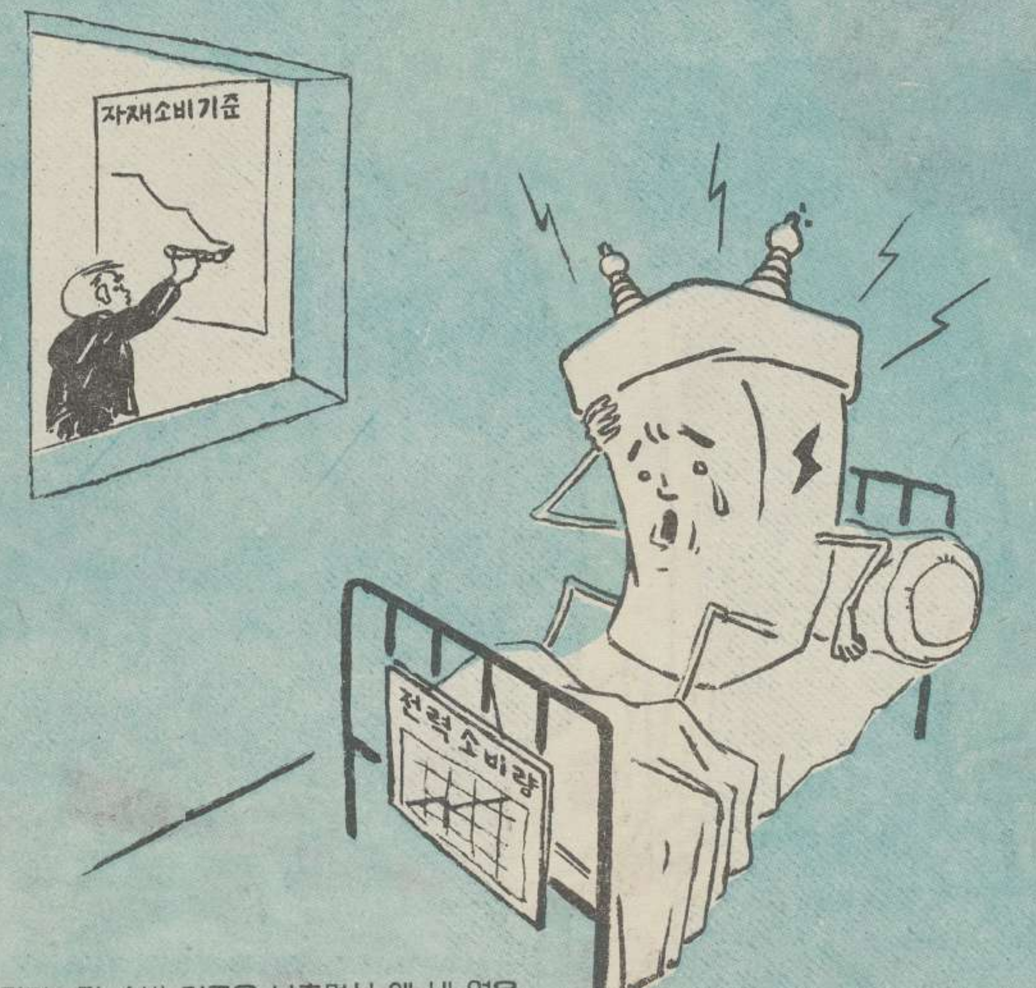
선풍기식 지도 일'군



조 명식 그림

긴급 대책을 요함

일부 기업소에서는 일반 자재 소비 기준을 낮추는 데만 관심을 돌리고 전력 소비 기준을 낮추는데는 무관심하다.



전기—저 소비 기준은 낮추면서 왜 내 열은
낮추지 못하는지?

최 영근 그림

전 구

리 동필

《어머니, 제발 제 말씀을 들어요.》

《네가 뭘 안다구 어미께 훈시냐, 훈시가》

《다른 집들에선 벌써 다 바꿔 끼였어요.》

《시끄럽다 아직 1년은 더 쓸텐데 아까운 걸 왜 버려, 돈이 어디서 샘 솟듯 하는줄 아냐?》

건설이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전력을 쓸 데가 급격히 많아져 나라에서는 전기가 부족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자기들이 쓰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는 딸애의 간곡한 설복에도 어머니는 듣지 않고 딸애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다.

그날 저녁이였다. 어머니가 순희에게 물었다.

《얘 전기가 안오니?》

《좀 있다가 켜지요 뭐.》

《이제야 어두웠는데 켜면 뭐래니, 저녁을 먹어야지.》

《달이 밝은데 마루에 나가 저녁을 먹자요.》

《오냐 그래라》

열살 나는 순희는 저녁을 먹으면서 또 어머니에게 전등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전구를 25촉 짜리로 바꿔 끼자요.》

《같은 값이면 환하게 해 놓구 살지 뭐 우리 한 집에서 25촉 짜리 안쓴다구 전기가 얼마나 더 없어지겠니.》

《어머니, 티끌 모아 태산이예요. 나라에서 전기가 부족된다는데, 25촉이래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아요? 난 내 돈으로 25촉짜리를 사다 끼겠어요.》

《또 고집을, 어른들이 한 번 말하면 들어야 해….》

하며 어머니는 딸애에게 눈을 흘겼다.

그때 배전부에 있는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댁에서도 전등을 바꿔 끼었습니까? 다들 25촉으루 바꿔 끼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25촉은 커녕 60촉 짜리를 쓰고 있으면서 바꿔 끼지 않는데 대해서 말을 들을까바 걱정을 하는데 순희가

《예, 우린 벌써 25촉 짜리루 바꿔 끼였어요, 보세요.》

하며 방으로 들어가 전등을 켜 보였다. 순희가 어느새 자기 몰래 25촉 짜리로 바꿔 끼여 놓은 것이다. 배전부 사람은 잘 했다고 칭찬을 했다. 순간 어머니는 마음이 즐거워져 순희를 바라 보았고 즐거워하는 어머니를 보고 순희도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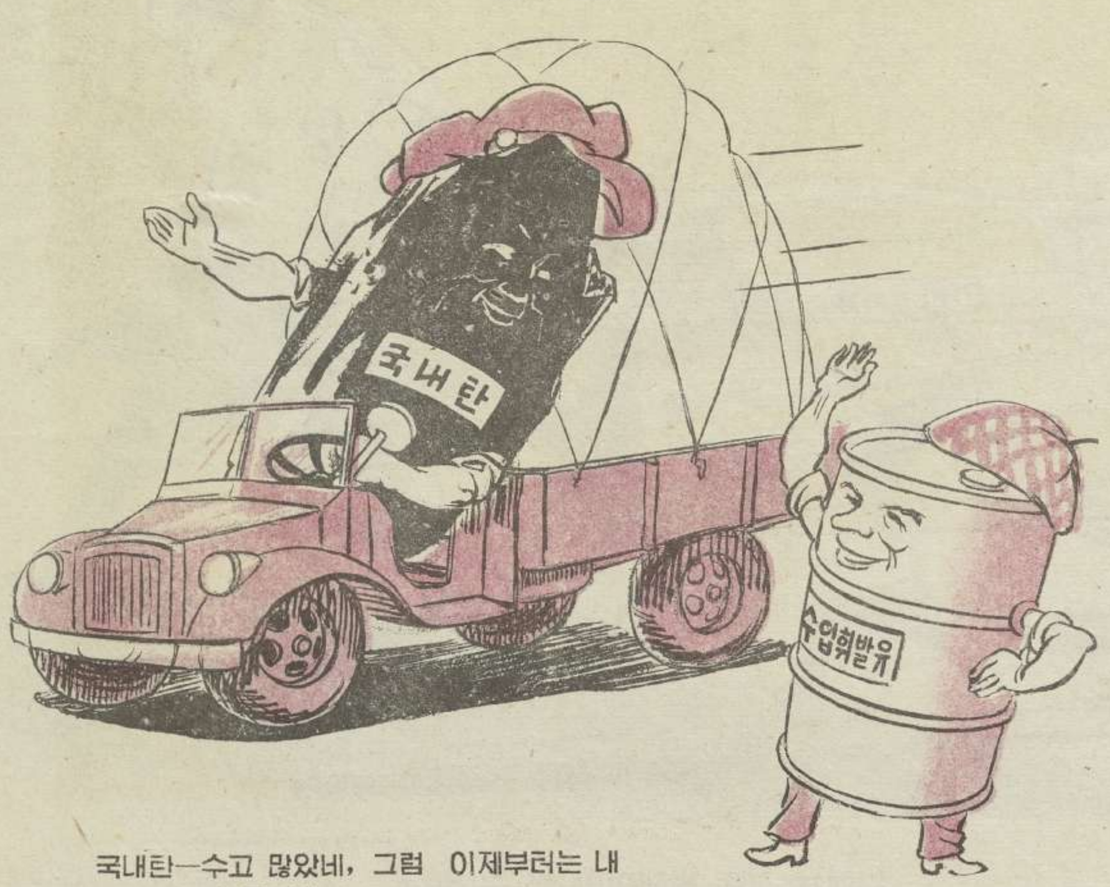
밤에는 개똥 벌레만이 볼 수 있다

평남도 상원 군에서는 소형 발전소 건설을 아주 굼뜨게 진행하고 있다.

—글이 잘 보이니?
—응! 작년에 본 그 간판이야…

최 영근 그림

교대 한다



국내탄—수고 많았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몰겠어.

송 용남 그림

일거 량득

리 찬우 그림

나는 꽃을 사랑해요

나는 꽃을 몹씨 좋아해요. 그리고 꽃을 참 사랑해요.

꽃이 없이는 하루도 살 재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우리 뜰, 나의 방, 나의 책상, 나는 꽃 속에 이렇게 파묻히여 향기로운 꽃향기 속에서 살기를 무척 좋아 한답니다.

백일홍, 채송화, 금선화, 다리아, 국화 그리고 장미, 카네이숀…… 게다가 내가 작년에 공원에서 꽃씨를 받아다 심은 빠베나도 요지음은 곱게 피여 향기를 풍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직 없는 꽃이 많아요.

록화 사업소에서 판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도 모란봉 공원이나 아동 공원들에 좋은 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비오는 날 저녁에 모란봉 공원 꽃밭에서 고운 꽃을 뜨려다가 공원 관리원한테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보기 위해서 공원에 심은 꽃을 옮겨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핀잔을 받은 일도 있지만 어쨌던 나는 그 꽃을 우리 집 꽃밭에 옮겨 심고야 말았어요.

지금 나는 우리 집 꽃밭을 참 자랑할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처럼 옮겨 심은 꽃이 공원에서처럼 그렇게 싱싱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건만 나보다는 공원에 오는 많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념품》

지나가던 청년들이 한 나무 아래에서 멈추어 섰다. 한 청년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더니 가지 하나를 타고 올라 앉았다.

《지팽이'감으로 어때? 멋 있지?》

아래 청년들이 쳐다보니 손잡이 모양 구부러진 것이 지팽이'감에는 그럴듯 했다.

이렇게 지팽이'감으로 선택된 그 나무 가지는 지팽이의 두곱이나 될 길이로 꺾어졌고 그나마도 껍질이 끊어지지 않아서 나무 중턱까지 껍질을 벗기여 버렸다. 그러자 리 동무도 김 동무도 박 동무도 그런 식으로 지팽이 한감씩 마련했다.

금강산 기념이요, 묘향산 기념이요,

어떤 사람들은 평양 구경 기념이라고 모란봉 공원 꽃밭의 꽃을 꺾어 가는가 하면 떠가지고 간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좋은 기념품을 가지고 간다고 기뻐할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념'군이 다녀간 뒤에는 휴양소나 공원에 기념품 아닌 기념 흔적이 남는다는 것은 생각 못하는 모양이다. 이런 기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꺾어 놓은 나무나 꽃밭에 큼직하게 이름을 써붙이고 간다면 더욱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느릅나무의 신세.

얼마 전에 체신성 트레스트에서는 소년단원들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았다.

《우리들은 어제'밤 종로동 대동문 영화관 앞 바로 아저씨들이 작업하시던 장소를 지나가노라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던 발을 멈추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 보았더니만 잔디밭에 줄지어 서 있던 느릅나무들이 아저씨들이 파 넘긴 흙에 묻히여 신음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밑둥부터 아예 부러지거나 휘여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중상을 당했고 어떤 나무는 짓밟히여 벌써 땔 나무처럼 말라버렸드군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성드려 가꾸어 놓은 잔디밭도 물론 다 모쓰게 되였지요.

체신성 트레스트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은 느릅나무나 잔디밭을 좋아 하시지 않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저씨들의 집의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인지요?》

그런데 이 트레스트에서는 같은 날 보통문동에 사는 소년단원들로부터 또 한장의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소년 록화 근위대의 명의로 보통문 앞에서와 륜환선 일대의 체신성 트레스트 작업장들에서 흙 속에 파묻힌 잔디밭과 느릅나무를 속히 원상대로 회복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씌여 있었다. 김 상애

이런 보모는 없는가?

리 찬우 그림

선박 수리가 굼뜬 공장에서

강원도 원산시 원산 토건 협동 조합 리 범재 그림

어로 일'군—빨리 수리해 주십시오. 고기 떼가 나타 났습니다.

수리 일'군—쉬—떠들지 마소! 지금 큰 고기가 물려고 하오

《우기 대책》

허 성필 그림

—이런 날엔 개장에 한 잔 하는 것이 제격이지요

고기'더미 우에 앉아서…

평북도 의주 고중 윤 병섭 그림

식료품의 질을 개선하라

함남도 정평 요업 공장 리 수길 그림

적굴 종합 상점에서

미술 대학 전 문부 조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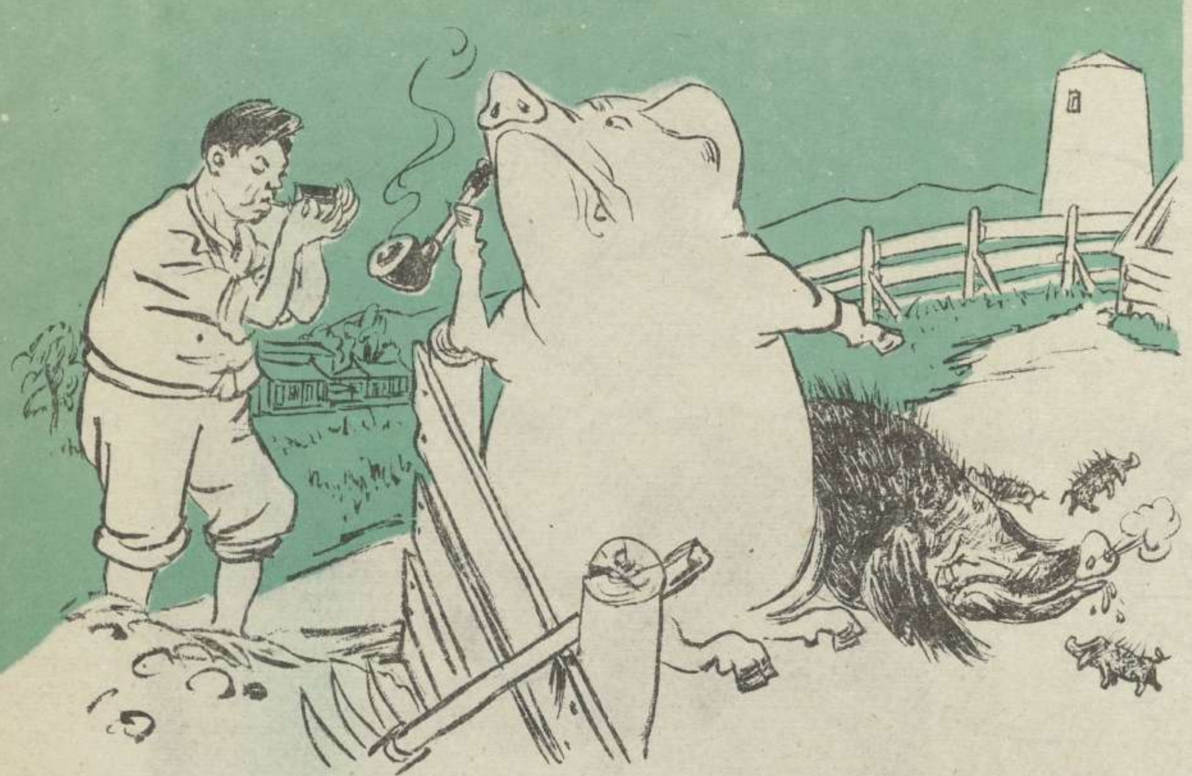
봉급을 타서는

함북도 청진시 수남동 리 웅남 그림

★정 정 7월상반호 14페지 1단 8행과 29행, 2단 30 행의 포교는 교포의 오식임으로 정정함 ★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우량종 돼지를 가져다 잡종화 하고 있다.

우량종 돼지의 한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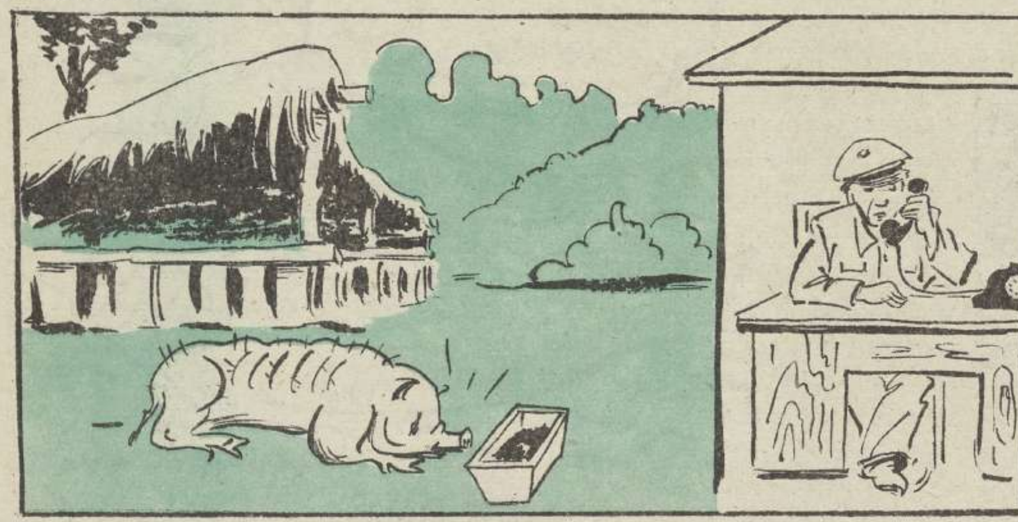


—손자놈들이 모두 외가를 닮아서 저 꼴이니 내 탓인가요 당신 탓인가요?

송 용남 그림

행차 후에 나발

일부 가축 방역소에서는 가축들의 병에 대한 치료 사업을 제때에 하지 않고 있다.



관리 위원장—방역소 입니까? 돼지가 앓고 있는데 빨리 와서 봐 주십쇼… 네…네 며칠 기다리 라구요?!

관리 위원장—죽은 원인은 어데 있습니까?
방역 소원—그거야 물론 병 때문이지요.

허 능택 그림

비상회의

황해 북도 신계군 천개 농업 협동 조합에 있는 소, 양, 돼지, 닭, 토끼들이 긴급 련합 대표 회의를 소집하였다. 닭이 사회하였다.

《친애하는 소 대표, 돼지 대표, 양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상 대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우리 조합 목장 일'군들이 우리들에게 배려를 적게 돌려 주는데 대해서 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 대표가 보고문을 들고 연단에 나갔다.

《여러분! 우리 조합에서는 아직도 가축들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의 정책을 잘 모르고, 논이 16 정보 밖에 없는 산'골에서 알곡 위주로 밭에만 매달려, 우리 가축들을 뿔구고 살찌울데 대해서는 생각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 담당 부위원장인 목장장은 우리들을 뿔굴 인민 경제 계획도 모르고 목축업 발전에 대한 작년 12월의 당 중앙 상무 위원회의 결정과 내각 결정 145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소나 돼지 아주머니와 같이 큰 가축들이 몇이나 되는가조차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저절로 뿔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식사 조건이 나쁘다는 것과 집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부언했다.

처음에 고슴도치같이 털이 까시시한 여윈 돼지 대표가 토론대에 나섰다.

《여러분이 아시다 싶이 우리 선조들은 신계돈이라고 품질이 우량한 것으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돼 가는가 보십시요. 다른데선 젖을 뗄때 벌써 20키로가 넘고 9개월만엔 118키로나 됐다는데 우리는 6개월에 겨우 15키로니 우린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산모는 스물셋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보다 못지 않는 서러움이 있습니다—하고 양 대표가 연단으로 뛰여 나갔다— 우리들은 다른 조합에서 이리로 올 때 이 조합엔 우리와 같은 가축들이 없으니까 가면 귀하게 여기리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꼴을 보십시요.》

양 대표는 흙탕이 묻은 궁둥이와 손을 내보였다.

《목장 일'군들이 청소를 안해 줘서 이렇게 습기 차고 더러운 데서 살기 때문에 80%가 지금 부제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고 내버려 두어 이젠 병이 만성들이 돼서 고칠 가망조차 없습니다.》하며 울상을 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가서 목장장을 붙들어다 혼'살을 좀 내 놉시다!》

소 대표가 제기했다.

《그럽시다!!》

×

《갑시다! 우리는 더 참을 수 없어 회의를 열고 목장장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돼지 대표는 주둥이로 옷깃을 물어 당겼고, 소 대표는 뿔로 목장장의 궁둥이를 떠밀었다.

《왜들 이러는거요, 진정들 하오, 진정들》

《진정하라구? 죽겠는데도 진정해?》

목장장은 회의장까지 떠밀리워 왔다.

《왜 조합 지도부에서는 가축들을 늘굴데 대해서 무관심하오? 건초를 계획은 95톤으로 세워 놓고 겨우 6톤만 베놓고도 그것마저 썩였지, 씰로쓰도 계획의 절반가량 해놓은 걸 보관 잘 못해 얼마 먹지 못했지, 대체 우리를 살굴 작정이요? 굶겨 죽일 작정이요?》

《알곡을 해결하기 위해 그랬소, 고기는 못먹어도 살지만 밥은 못먹으면 못살겠기에.》

《여보, 알곡을 직접 생산해야 밥을 먹는줄 아오? 우리를 많이 기르면 얼마든지 알곡을 바꿔 올 수 있소. 우리를 기르는게 산'골에서 밭만 뚜지는 것보다 못할 것 같소?》

《가만 있소.》

《가만 있다니요—돼지 대표는 계속 들이댔다— 우리 집은 대체 언제 지어줄 작정이요, 다른데서는 모두 비'바람도 안맞는 문화주택에서 산다는데 왜 우린 이렇게 지붕도 벽도 없는 말뚝집에서 비'바람에 떨게 하우? 그래도 당신들은 비가 오면 비를 안맞겠다고 집으로 뛰여 들어 가지요? 그리구 먹을 건 왜 또 조금씩 주우? 새끼들이 여럿이 달려 붙어 젖을 파먹는 산모에게까지 농후 사료 겨우 700그람씩 밖에 안주니 어미가 젖이 잘 나겠소?》

양 대표가 또 격분을 참지 못해 대들었다.

《우리 집은 또 왜 습기가 차고 더럽게 내버려 둬요? 그래서 80%나 부제병에 걸려 죽게 됐소.》

《하! 병에 걸렸으면 왜 제기를 안하우, 내가 수의사요 뭐요. 동무들이 앓는지 안 앓는지 어떻게 알겠소.》

《병에 안걸리도록 예방을 왜 못해요.》

토끼도 끼여 들었다.

결의는 높았으나

실천은 낮았다

조 명식 그림

《우리는 노력만 하면 굉장히 빨리 뿔어나갈 수 있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동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혼살을 내야 돼!》하고 닭 대표가 목청을 도꾸어 웨쳤다. 그러자 목장장은

《여보, 닭들게겐 우리가 잘못한게 없소. 우리가 닭들이 교배를 못하게 가두어 뒀소 어쨌소, 닭알 깨우는 것도 내가 닭알을 안고 있으라우?》

《그것도 말이라고 해요? 인공 부화를 하란 말이예요. 왜 여지껏 조합적으로 겨우 닭이 서른 마리 밖에 안되는지 아세요?.》

그때 황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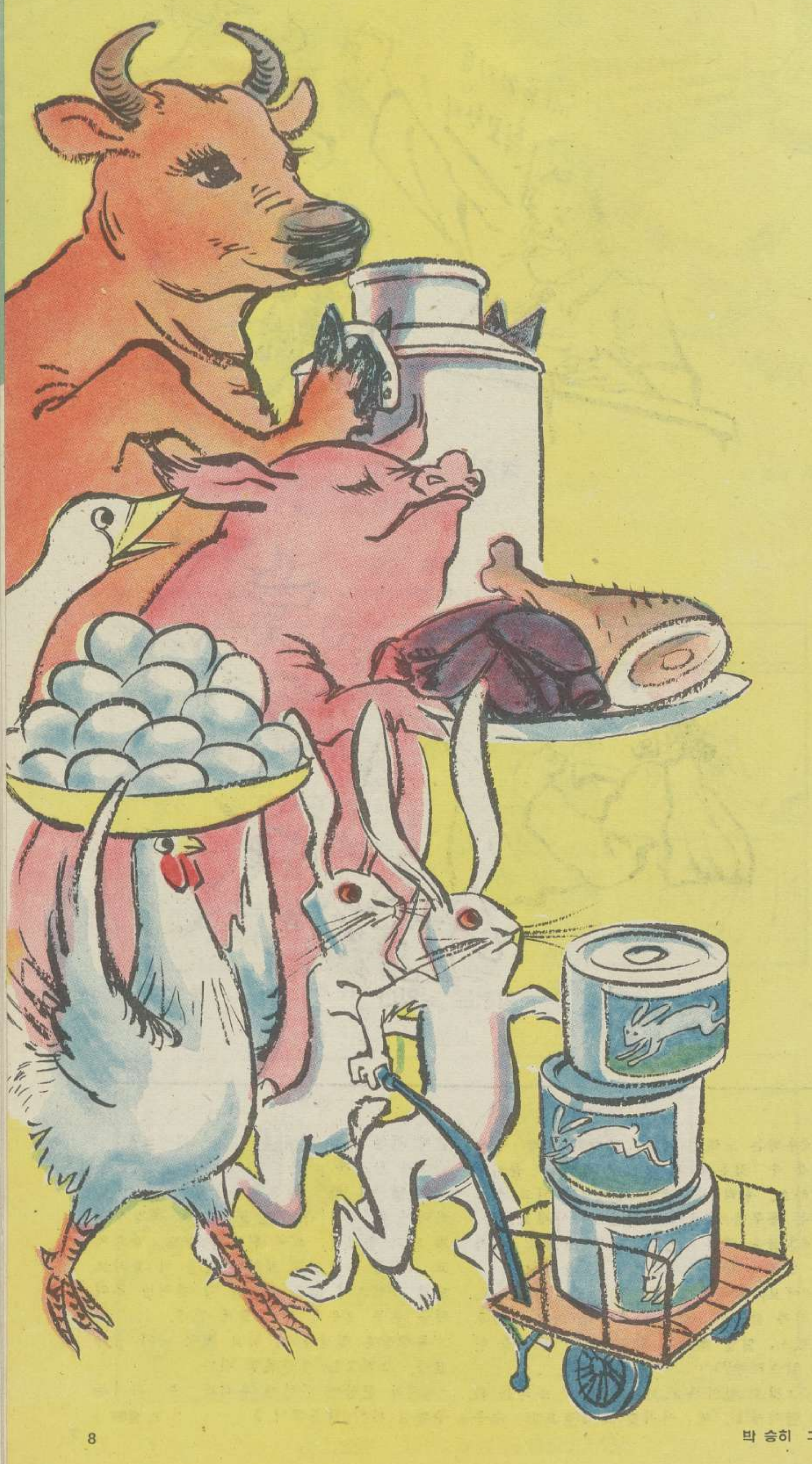
《안됐어! 한 번 혼살을 내 놔야겠어.》 하더니 씩 하며 뿔로 받을 기세로 목장장에게 달려 들었다. 그에 뒤따라 양도 받으려고 머리를 들여댔고 돼지는 입을 쩍 벌리고 달려 들었으며 닭은 싸움을 할 때처럼 목의 털을 곤두 세우고 달려 들려 했다.

목장장은 질겁을 해 뒤로 벌떡 나가 넘어졌다. 그리고는 애걸복걸 했다.

《제발 한번만 한번만 용서해 주. 다시는 무관심 하지 않을테니.》

리 운봉

더욱 풍성풍성한 식탁을 위하여



박 승히 그림

똑똑한 체험

박 승점

△등장 인물
영식 (축산반원)
안해
태수 (조합원)

△막이 열리면—영식 밥상을 앞에 놓고 게루덜거리고 있다.

영식 여보! (숟가락을 한손에 쥐고 저'가락을 또 한손에 쥐고 노기 등등 해서) 아니 여보!

안해 (부엌에서 나오며 상냥스럽게) 아니 시장하시다면서 어서 잡숫지 왜 자꾸 그러시우?

영식 (도끼눈을 해 가지고) 아무리 허기가 들었기로서니 이거야 먹겠냐 말야?!

안해 아니 왜 그러시우?

영식 그래 이 애호박 찌게는 겨우 솜씨가 이 모양이야?

안해 솜씨가 어때서요?

영식 (저'가락으로 콩나물 무침을 한 저'가락 들면서) 그러구 이 콩나물 무침은 왜 또 이렇게 시큼털털하구두 새콤새콤 한가 말야!

안해 아니 오늘은 유별나게 반찬 투정을 다 하시는구려 호호호

영식 웃어? 원 어이가 없어서! 투정이 아니라 입이 있으면 맛을 좀 보란 말이야 맛을! 난 돼지를 기르고 있지만 돼지한테도 이렇게는 안해 먹였단 말이야!

안해 어서 돼지나 잘 먹여 기르시우. 그래야 고기가 흔할테고, 고기 반찬 잡수시면 아마 반찬 가림을 안하실가 보니 호호호

영식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좀 똑똑히 하란 말야. 다 정성이 있어야 하는게야 정성! 돼지도 정성을 들여 먹이면 살이 퍼둥퍼둥 찌는 것이거든, 다 정성에 달려 있어! (밥 숟가락을 들려 한다)

△이때 태수 급히 등장

태수 아니 여보게!

영식 아 태순가, 어서 오게, 좀 올러오게

태수 여보게! 올러 가구 뭐구 빨리 가보기나 하게.

영식 가다니 어딜?

태수 어디가 뭔가. 지금 돼지우리에서 자벨 찾는단 말이야!

영식 돼지우리에서?

태수 돼지들은 꿀꿀대고 야단이지, 관리 위원장은 당장 자벨 찾아 오라고 그러시지!

영식 아니 무슨 일이 생겼나?

태수 아니 자네도 그렇게 대접하면 펄펄 뛸걸세. 그 귀중한 사료를 부패시켜 먹이니 먹을건 뭐구 조리도 하지 않고 주니 또 잘 당길건 뭔가!

안해 (밥상을 냉큼 들고 일어서며) 사람이야 호롱이나 칠줄 알지만 돼지들이야 얼마나 애타 꿀꿀대겠수.

영식 뭐 뭐이?!

태수 아니 이 사람아, 어서 가 보세!

안해 다 정성에 달렸어요, 정성에!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영식 아…니 여 여보! (따라 들어 가려고 한다)

태수 여보게 빨리 가보게. 돼지들이 저녁을 굶겠다니까!

안해 난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대접할테니 당신은 정성을 다하여 돼지나 잘 먹여 주시구려. (내퇴)

영식 (안해의 뒤'모습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허… 입맛이 써서 원…

태수 (영식의 팔소매를 잡아 끌며) 입맛이야 돼지가 쓴 모양인데 어서 갑세!

영식 허… 참! 똑똑히 체험하는군! (태수의 뒤를 어스렁 어슬렁 따라 나갈 때)

—막—

허 능택 그림

천리마의 기세로!

한 밭에서 나온 이밥에 고기 반찬

송 용남 그림

간을 맞춘다

백 인균 그림

자네를 생각하는 거네

오 홍택

박 상주 농민은 최 구장 집을 세 번이나 찾아 가서야 겨우 “곱배기„ 쌀 서말을 얻을 수 있었다. 얼마간 지나서 최 구장이 달달거리며 상주 농민을 찾아 왔다.

《이 사람, 상주 자네 쌀 뭐말 더 갖다가 먹지 않겠나, 닷말을 부탁하면 걸 서말 밖에 변통해 못줘서 미안해 그러네》최 구장이 선심을 써 하는 말에 상주 농민은 저으기 의아해 하는 눈치였다. 쌀 서말을 곱배기로 물기로 하고 꿔 올 때만 해도 손발이 달토록 사정사정했는데 웬 심사로 이번엔 찾아까지 와서 《선심》을 부리는지 모를 일이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음이 분명했다.

《궁한 형편이외다. 변통만 해 주신다면》

《원, 그럼 벌써 와 말하지. 한 동리에 이웃으로 살면서 그럴 법이야 있겠는가, 있다가 오게》

쌀 서말은 모 내는 통에 다 없어진 후고 풀뿌리로 살자니 궁한 처지라 후환이 두렵지만 곱배기건 색거리건 주겠다는 쌀은 우선 먹고 볼 판이다.

춘궁기에 들어서면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말이 아니였다. 약 80호 되는 부락 농가중에서 죽물이라도 겨우 먹는 농민은 10여호도 되지 못했다. 절량 농가들에서는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거나 부황증에 걸려 들어 눕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한 틈을 타서 한 몫 보려는 고리대업자들이 읍에서 밀려와 “입맥 선매„와 “청도 선매„홍정을 시작하였다. “입맥 선매„는 익어가는 보리를 밭에다 세워 놓고 통채로 팔아 넘기는 것이요, “청도 선매„는 푸르게 자라나는 벼를 논에다 세워 놓은채 당장 호구를 하기 위해 개값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다.

상주 농민도 사정이 딱하게 되였다. 최 구장의 속심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최 구장을 찾아갔다. 상주 농민의 부석부석한 얼굴을 쳐다 보더니 최 구장은

《상주, 자네 꿔 먹은 내 쌀을 지금 돌려 줄 수 없겠나, 쌀 몇 말만 주면 당장 익어 가는 보리 밭을 통땅 살 수 있네, 돈이란 돌려야 새끼을 치는 법인데 자네에게 빌려 준 건 가을에야 받겠으니 손해가 많네》.

《아니 구장 어른도 아시다 싶이 지금 며칠째 굶어서 무리 주검이 날 지경이외다. 사실은 쌀 좀 더 돌릴려고 찾아 왔습니다.》

《허허 자네 속심도 꽤 좋네, 자네 사정이 딱하면 논을 팔게, 우선 먹고 살아야 할게 아닌가, 읍에서 나온 사람보다야 값을 잘 해 주지》

“청도 선매„를 하라는 것이다. 상주 농민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대답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 사람, 내가 자네 사정을 그만큼 봐 줬으면 자네도 내 사정을 봐 줘야 할게 아닌가. 자네에게 꿔 준 쌀이 지금 있으면 몇달 후에는 몇 곱으로 되는지 자네 아는가. 벼를 팔든지 내 쌀을 지금 내든지 대답을 하게나》

《우리 벼를 몇말로 사시려우》

《자네 생각을 잘 했네, 사람이란건 남의 사정 봐 줄줄도 알아야 하네. 읍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네 것을 열두말 금사로 치데만 난 열서말로 살테네, 자네 사정을 봐서 한 말 더 주는거네》

《아니 우리 논에서 벼가 얼마나 날것 같소?》

너무도 황당한 최 구장의 말에 상주 농민은 이렇게 되물었다.

《잘 나면 30 가마니나 나겠지만 아직 이삭두 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알겠나. 30가마니 폭 치더라도 아직은 절반도 못된 농사니까 15 가마니, 거기다 가을에 가서 땅 값 물구 수세 물구, 붙어 돌아가는 세금 물구 남을게 뭐가 있겠나. 자네를 생각해 하는 말이네》

《생각해 줘서 감사합니다만 적어두 50 가마니는 날거웨다. 다 해 놓은 농사를 가지구 그렇게 절반으루 치는 법이 어데 있수. 청도 선매를 하더라도 다른데 가서 값이나 좀 때려 봅시다.》

다음 날 아침 최 구장이 상주 농민을 찾아 왔다.

《상주, 값을 알아 봤나? 아마 열 말 이상 줄 사람이 없을걸. 내가 손해 본 셈 치구 열다섯말을 줄테니 홍정을 하세》

최 구장 말처럼 열말 이상 주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벌써 최 구장이 읍에서 나온 고리대금업자들과 짜 가지고 하는 수작이였다.

상주 농민은 입이 열리질 않았다.

《상주, 자넨 당장 굶으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선 먹어야 할게 아닌가. 내 쌀 다섯말 갖다 먹었으니 곱배기로 갚아서 열말 하구, 지서장 생일 잔치, 면장 어른 자제분의 결혼 구조비, 에또—뭐더라, 그래 면직원 접대비, 이럭저럭 내가 자네 앞으로 선대한 쌀이 서녀말이 되네, 아직두 두 말을 갖다 먹을 수 있지 않는가, 빨리 도장을 치게, 거원, 며칠씩 굶구야 되겠는가》

상주 농민은 주먹이 떨리였다.

《쌀 두 말에 피땀 흘린 한해 농사를 몽땅 빼앗자는거지?!》

최 구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상주 이 사람, 자네를 생각해서 그러는 전데 싫으면 그만 둘거지 주먹은 왜 부르쥐는가》

《이놈아, 네놈들이 미국 강도놈들과 리승만 역도들을 등에 업고 우리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 배를 불리고 이제는 쌀 두말루 일년 농사를 몽땅 빼앗자는거지?!》

상주 농민은 최 구장 앞에 바위처럼 막아서서 호령을 쳤다. 뒤'걸음 치던 최 구장은 마침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물 구덩이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박 상주 농민은 미군과 괴뢰《정부》를 비난했고 구장을 물구덩이에 빠뜨렸다는 죄로 경찰서에 끌려가고 상주 농민의 논은 최 구장이 빚값으로 차지하게 되였다.

죽일놈은 리승만이다

오 정실

서울에서 북으로 60리 가량 떠러진 고양군 중면과 송포면 일대에《모내'벌》과《무검'벌》이라고 하는 소위 《국유지》 60만평이 널려 있다. 이 벌은 자고로 습지로 유명한 곳이다.

지금 이곳 60만평의 《국유지 개간권》을 둘러싸고 《북한 난민 정착 수용소》의 농민들과 《복귀 불능 정착 난민 사업장》 농민들이 리 승만 도배의 롱간으로 4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여 내려 오고 있다.

《북한 난민 정착 수용소》의 1천 3백명의 농민들은 미제의 침략 전쟁 당시 리 승만 도배의 총칼에 끌려 남조선으로 몰려온 북반부의 실향 농민들이며, 《복귀 불능 정착 난민 사업장》의 3천명의 농민들은 그 대부분이 전쟁 피난민과 불구자로 제대 당한 괴뢰 군인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리 승만 도배는 난민 구제책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밑에 습지 60만평을 미끼로 이들 농민들을 무수히 나꾸고 있다.

《북한 난민 정착 수용소》 농민들은 60만평 《개간권》을 얻기 위하여 굶주린 배를 조여가면서 푼푼이 모은 수천만환을 들여 리 승만 괴뢰 《당국》으로 부터 《하천부지 점용 일체 양도권》을 《이양》 받았다. 이 《양도권》을 《이양》받기 위하여 괴뢰 《당국》의 아래'놈으로부터 우'놈에 이르기까지 수십명에게 수천만환의 뢰물을 먹이고 겨우 얻은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력을 다하여 36만평을 개간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여기에도 수천만환의 건설비와 막대한 로력이 투하되였다. 앞으로 이들은 여기에서 흠뻑 무르익어갈 곡식을 눈앞에 그리면서 더욱 개간 사업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것은 3년전의 일이였다.

그런데 이 《국유지》에 난데 없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달려 들기 시작했다. 이 청년들은 다름 아닌 《복귀 불능 정착 난민 사업장》측이였다. 이들은 이 《국유지》 60만평에 대한 《개간권》 소유를 주장하면서 《북한 난민 정착 수용소》 농민들의 즉시 철거를 요구해 나섰다.

따지고 보면 《복귀 불능 정착 난민 사업장》 농민들도 그럴만한 리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리 승만 도배들이 이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환을 받고 《개간권》을 허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앞뒤로 2중의 사기 협잡을 해 먹은 것이다. 그러나 리 승만 도배의 사기 협잡은 이것 뿐만이 아니였다. 리 승만 도배는 60만평 《국유지》를 미끼로 이미 1953년에 《고양군 상이 군인회》에 《개간권》을 팔아 먹었고 그후 1956년에 중면 주엽리의 《상이 군인》들에게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개간권》을 팔아 먹었다. 그런데다가 《북한 난민 정착 수용소》 농민들은 《주엽 상이 군인》들에게 1백 2만환을 지불한 다음 괴뢰 당국에 또 수천만환을 먹이고 《개간권》을 이양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난민 정착 수용소》 농민들은 울면서 겨자 먹는 격으로 4중의 사기를 당한 셈이였다. 이러고 보니 60만평의 《국유지》는 그들의 전 재력을 다 털어 바친 목숨과 같은 농토이였다.

이러한 농토를 난데 없는 《복귀 불능 정착 난민 사업장》 농민들이 달려 들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고 보니 이들 사이에 무사할 리가 만무하였다.

더구나 《복귀 불능 정착 난민 사업장》 농민들도 같은 수'법으로 리 승만 도당에게서 《개간권》을 얻고 보니 당당한 《경작권》의 소유자인 것만은 틀림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한술 더 떠서 괴뢰 《보건 사회부》와 미국 O,E,C (주—주한 미 경제 협조처—경제 원조라는 미명으로 남조선 경제를 략탈해 가는 미제의 략탈 기구)에서와 경기도 지사에게서까지 사기를 당하고 있다. 이러고 보니 《국유지 개간권》을 둘러싸고 두 파간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서로 《연고권》을 주장하다 보니 3년째 춘경기를 놓지기까지 하였고 그들은 너나없이 로두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리 승만 도배가 감행하고 있는 천추에 씻지 못할 또 하나의 죄악인 것이다. 리 승만 도배는 살기 위하여 아득바득하는 남조선 농민들을 기만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수탈 롱간 하다가 이제 와서는 두 파간의 《경작권》 확정을 운운 하면서 경찰을 동원시키어 올해에도 농사를 중지시키고 있다. 리 승만 도배에게 고스란히 사기 당한 이들은 《국유지 경작권》을 주장하는 자기들의 싸움이 헛됨을 알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한 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오늘에 와서 더는 어쩔 수 없는 자기들의 처지가 바로 리 승만 도배들의 간악한 반 인민적 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되였다. 더구나 미제는 리 승만 도배의 배후에서 어부지리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

농민들은 일어 났다. 리 승만 도배의 횡폭하고 잔인한 행동에 증오를 품은 그들 중면 농민들은 집단 시위로서 푸랑카르를 들고 서울 괴뢰 《국회 의사당》으로 몰려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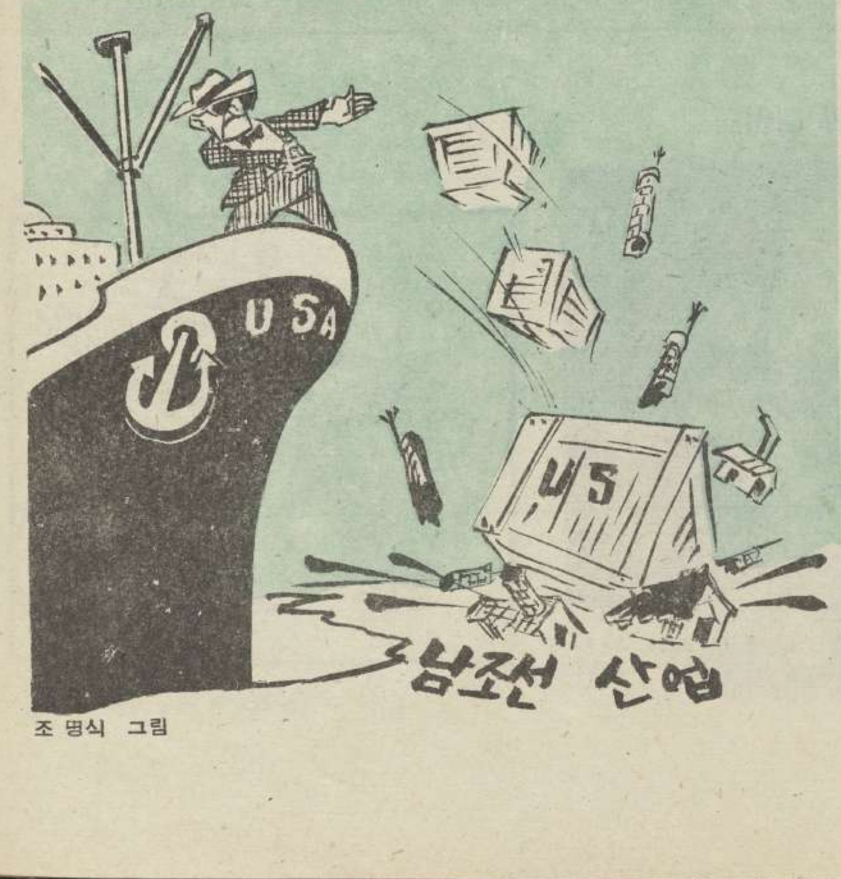
《우리들에게 농토를 달라!》

이들의 웨침은 반 미 반 리승만,투쟁의 불씨를 품은 농민들의 집단적 진출이였다. 이들의 웨침은 남조선 인민들의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라!》는 힘찬 목소리와 합류되면서 《의사당》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의 웨침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념원을 한발한발 더 앞당기고 있다.

파피하는 원조



조 명식 그림

피땀을 흘려 일했건만

허 능택 그림

졸렬한 연극

류 계환

서울 경마장에서 3월부터 시작되던 춘기 경마 대회가 끝난 이틀날인 6월 29일 서울 대한 극장에서는 또 하나의 대회가 열렸다. 《자유당 전당 대회》가 바로 그것이였다.

《대회》에는 지주, 예속 자본가, 민족 반역자, 친일, 친미파의 대표들과 테로단 깡패 대표들이 모였다. 경마 대회에서 한몫 보았거나 돈을 털린 패거리들 중에서는 몇 사람이 대회에 모였다. 어쨌든 그것도 도박'군들의 모임에는 틀림 없었으니까…

《대회》는 아침 10시 반에 열렸다. 그리고 오후에 일찌암치 막을 내렸다. 모두 다섯 시간이나 했을까?

《자유당》의 하는 노릇이기는 하지만 2년 3개월만에 열린 《전 당 대회》 치고도 《대회》 자체부터가 《어이가 없다》는 것이 남조선 출판물들의 견해이다.

하기야 《대회》를 오래 끌면 끌수록 바탁만 더 드러날 터이니 오히려 그것이 《상책》이였을런지도 모른다.

흔히 그들의 회합에서 의례적으로 한 마디씩 론의되던 《경제 타개책》이요. 《민생 문제》요 하는 것도 금번 대회에서는 론의되지 않았다. 남조선 《국회》처럼 모였다가는 헤여지고 헤여졌다가는 모이고 련속 장막극에는 그럴것도 필요하였지만 하루 아침에 구상된 단막 희극에는 그러한 《디테일》이 요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회》에서는 《개회사》도 있었고 《폐회사》도 있었고 또 《자유당》의 전횡을 찬미하며 인민을 위협하고 반대파를 짓누르며 굴종시킬 것을 내용으로 한 리승만의 《유시》도 대독되였다. 그러나 그런 공갈은 《자유당 전당 대회》가 아니라도 누구나 일상적으로 보아 오는 터이며 아무런 진기한 것도 없다. 《대회》에서 유일한 구경'거리가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리 승만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천》 한다는 졸렬한 광대놀음이였을 것이다.

연극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였다.

이날 《의장단》 역할을 하던 6명의 리 승만의 졸개들은 리 승만의 《유시》 대독이 끝나자 돌연 회의를 중단하고 차기 《정 부통령 선거》에 리 승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을 《결정 선포》하였다. 그리고 대표를 《경무대》에 파견하여 그 취지를 리 승만에게 알렸다.

리 승만은 이렇게 대답했다.

—얼마 전에 나에게 출마하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생각 없이 하겠다고 했다. …여러분의 뜻이라면 쾌히 승락하겠다.

그리고는 이런 발언이 지내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던지 이렇게 덧붙였다.

—당선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나로서도 꼭 당선되고야 말겠다.

감투라면 벽에 붙은 그림에도 달려드는 리 승만이가 《생각 없이 출마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질 노릇이다.

금년 초에 리승만은 남조선 기자들을 경무대에 불러놓고 명년 《대통령》 선거에 립후보하겠으니 《 잘 선전해 달라》고 떠버린 일이 있다. 그때 리 승만은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왜냐 하면 리 승만은 3년 동안이나 기자 회견을 거절해 오다가 《선거》가 박두해 오자 처음으로 이 기자 회견을 소집하였고 또 거기서 한 말은, 출마하겠으니 잘 선전해 달라는 말 뿐이였기 때문이다.

구미호가 된 리 승만도 그런 일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리 승만은 《대통령》에 《꼭 당선되고야 말겠다》고 비상한 각오를 피력하였는데 그는 자기의 추악한 정권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거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초대 대통령 선거》때 리 승만은 경찰을 시켜 그의 반대파 립후보자를 백주에 서울거리 한복판에서 습격하여 무리 매질을 가하고 《선거》 서류를 박탈한 후 립후보 등록을 강제 취소시키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섰다.

《2대 대통령 선거》때는 수 많은 《국회 의원》들을 검거, 투옥, 감금하고 《재선》을 조작하였다.

《3대 대통령》때는 4사 5입의 생억지로 《헌법》을 개악하고 종신 대통령의 길을 만들었고 《선거》에서 200만표 이상을 획득한 반대파 립후보자 조 봉암을 검거하여 부당한 구실을 붙여 사형 언도를 내렸다.

할 수 있는 모든 악착한 짓은 빼놓지 않고 다해 가면서 《대통령》 감투를 관속에까지 뒤집어 쓰고 들어 가겠다는 것이 리 승만의 속심이다.

말하자면 리 승만의 종신 감투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이 바로 금번의 《자유당 전 당 대회》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대회》를 통하여 리 승만의 《대통령》 《출마》에 《민의》를 《부여》하려는 것이였다.

그런데 그 《민의》가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가는 지금도 《대회》장 밖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오는 바이다.

언론 봉쇄(《경향 신문》 폐간도 그 하나의 실례이다) 반대파의 정치 활동의 말살(《지난 6월 경남 울산 을구에서 있은 《국회 의원》 재선거 시에 리 승만은 1,000명의 경찰을 선거 현장에 동원하여 야당계 《국회 의원》에게 무리 매질을 가하여 《선거》장에서 쫓아냈다) 인민 탄압 (매일 평균 700명을 검거, 투옥, 학살하고 있다!)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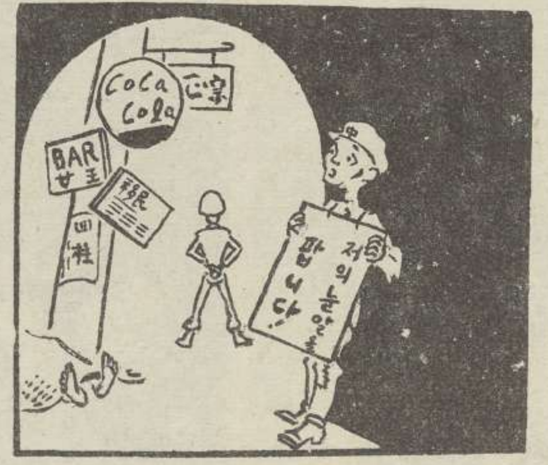
리 승만 도당은 서루른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릇은 인기가 없으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남조선의 희비극

최 영근 그림

활극(국회에서)



비극 남조선 출판 보도에 의하면 굶주린 부모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눈알까지 팔려는 학생이 있다

희극(괴뢰군 장교와 미군 병사)

《사기 요강》

신 흥순

을 요즘 남조선에서 요강 요강허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갑 음 그거? 우선 《국민 륜리 요강》으로부터 《공무원 륜리 요강》이요, 《교원 륜리 요강》《변호사 륜리. 요강》허는 《륜리 요강》이란 거야.

을 뭐 륜리 요강?

갑 국민들이 3강 5륜을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부역을 거부하며 도적은 날로 우심하여 가고 관공리의 부정 사건이 늘어 간다는 거야.

을 뭐야? 저이놈들의 학정 때문이 아니구 봉건 시대의 케케묵은 3강 5륜을 몰라서 그렇다니? 호참! 별소리 다 들네.

갑 저 전라 북도 같은 데서는 이 《륜리 요강》 하나로도 부족하니까 거기에다 《명심 보감》이란 책을 인쇄해서 전체 도민들에게 노나 주고 강제로 읽으랜다나?

을 아니 그건 또 왜?

갑 그 책에는 뭐이 있는구 허니 《마음을 착하게 먹고 잘 순종하는 자는 하느님이 복을 내려 준다》는 것.

을 옳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말을 거역하지 말고 순한 양처럼 복종하라는 거로구먼!

갑 그리구 《모든 것이 다 팔자 소관이니 아예 원쑤를 맺지 말라》는 것.

을 옳지, 요즘 반미 반 리 승만 기세가 날로 높아가고 걸핏하면 인민들이 파업이요, 항의요, 시위요, 롱성 투쟁이요 허니까 그걸 무마해 보려는 수작이로구먼!

갑 그리구 또 《부귀는 재천》이라구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다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누구를 원망할게 없다》는 것.

을 으흥! 남조선 인민들이 못사는건 미제와 리 승만이 때문이 아니니 들구 일어나지 말라는 수작이로구나!

갑 이런 《요강》들을 매가호 벽에다가 써붙여 놓고 아침 저녁으루 외우라는 거야

을 그러니까 그놈의 《요강》이 무슨 요강인구 허니 인민들을 속여 보자는 사기(詐欺) 《요강》일세 사기 요강!

갑 그렇지, 《사기 요강》!

리승만의 착유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짜내기 위하여 세'법을 개악하며 세무 기구를 확장하는 등으로 더욱 발광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남조선 농촌에서

미술 대학 조선화부
리종길 그림

연기 나는 집이라고 찾아 왔드니

어머니—산풀을 끓였다 어서 먹어라
아 이—난 산풀 안 먹겠다. 엉엉 밥 주어 엉!

함남도 함주군 주서리
리 처렬 그림

빈 깡통 신세

한 계흠

신임 국무 장관 허터의 장거리 전화를 받은 장 개석은 사뭇 흥분에 떨며 중이 념불 외이듯 허터의 말을 되뇌이였다.

—죽은 덜레스와 꼭 같다구, 희… 념려 말구 단단히 하라구 희…

한동안 안절 부절 몸가질바를 모르게 기쁨에 헐떡거렸다. 그러다가 그만 무릎팍까지 탁 치며 기쁨의 환상 속에 파묻혔다.

(넓고 넓은 대륙에서 쫓겨나다니 아… 원통하군… 제길! 본토 회복이 안된담… 그런데 음… 방금 허터씨의 말… 그래도 미국 덕분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 옳지?! 그래 그래 간판이래도 단단히 달게 해야 해!)

장 개석의 기상천외의 불호령으로 대북거리가 발칵 뒤집혔다. 기관과 기관, 그 어데서나 《중화 민국》이라고 씌여 있는 간판이면 죄다 대못을 두 개씩 세 개씩 박았다.

바로 그 날 5월 28일 밤이였다. 요란한 전화 벨 소리가 울렸다. 장 개석은 거드름을 피우며 수화기를 들었다.

—주미 대사 엽공초,응 당신은 무슨 기쁜 소식을 알릴려는가?—

—아니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하… 밤낮 큰일이야 당신은 담이 작아 웅 기세를 올려야 해 낮에 허터씨도 그랬단 말이야—

—아… 아 아닙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55차 회의에서 우리 팀을 제명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33대 19로 결정 됐답니다. 국부라는 이름이 안된답니다—.

—뭐 닥쳐! 허터씨가 덜레스와 꼭 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는 데 웅 그게 웬 말이야—

—사… 사실입니다—

장 개석은 수화기를 내어 동댕이치며 밑둥 썩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펄썩 주저 앉았다.

그 뒤 며칠 동안 《국부》라는 이름을 두게 해 달라고 애걸 복걸하는 무전과 장거리 전화가 워싱톤에 련달렸다. 장 개석의 외교부도 《대서 특필》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어 뉴—욕 타임스지까지 이렇게 짖어댔다.

국부라는 이름으로는 전체 중국을 관리할 수 없다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브란데이지의 통보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위력에 굴복했다—

간판에 대못까지 다시 박은 《국부》의 이름을 내어 놓을 수 없는 장 개석은 6월 8일 대만에 있는 《중화 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재 신청하고 초조히 하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자문 자답했다.

(원 미국놈은 덜레스처럼 죄다 죽었단 말인가. 나토요,쎄아토요 하는 패들은 왜 끔짝 못했단 말언가. 아니야, 이번엔 되겠지 될꺼야,어떤 국제 기구에서나 쫓겨나면 안 돼,그러다간 유엔에서까지 쫓겨 날지 몰라, 그렇지, 결사적으로 해야 돼!)

그 다음날— 6월 9일 밤 또 다시 장거리 전화의 벨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장 개석은 게걸스레 먹던 미국제 빠나나 통조림 빈 깡통을 응접 테불에 되는대로 밀어 놓고 허둥지둥 수화기를 들었다.

—응, 엽 공촌가 그래 올림픽? 빨리 말해, 됐나 안됐나 말이야!

—저… 저 안됐습니다. 중화 민국이란 이름은 절대 안된답니다. 전 중국을 대표할 수 없… 없답니다. 대만팀이라면 고려하겠다고, 서기장 오토마이에르가 말합니다. 네… 네 미국 사람인 위원장 브란데이지까지도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엽꽁초 (급기야 그렇게 불렀다) 아….아니 공초 공초! 담배꽁초가 아니야,당신은 대사야, 그래 당신은 미국 사회 여론에 호소 못하는가 말이야.

—네! 네 별별 지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국회에서 엔젤 의원까지 장 개석 국부는 가망 없다고 했답니다.

—뭐 미국 국회에서, 아이야 죽일 놈, 닥쳐! 이 팔이 뭐이야?! 아이야, 내 신세야!—

절망에 빠진 장 개석은 울화김에 수화기를 힘껏 내려 놓고 쓸모가 없어진 빈 깡통을 창밖으로 내동댕이쳤다. 장 개석은 굴러가는 깡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내버려진 깡통의 신세! 그것을 바라보는 그는 자기의 신세가 련상되였다.

허가'장 있는 도적놈

함북도 청진시 수남동 리 응남 그림

게게 묵은 유성기판

미술 대학 조선화부 리 종길 그림

《하느님 보호책》

로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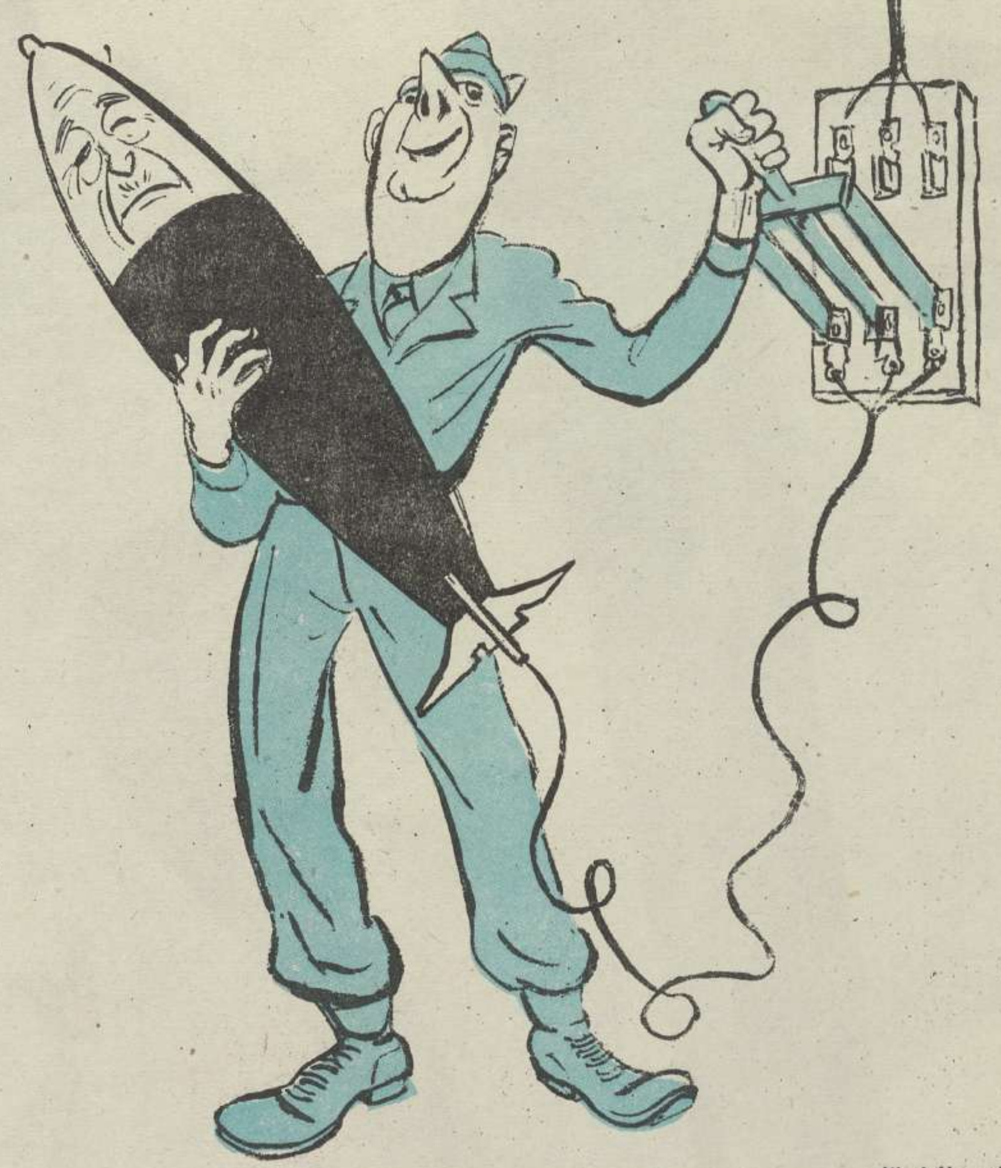
쏘련이 지구 물리학 년도에 예견된 과학 연구 계획에 따라 개 두 마리와 토끼 한 마리를 실은 중거리 탄도 로케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모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소식이 전하여지자 미국 로케트 협회에서는 인차 확대 전원 회의를 열었는 데 여기에서 취급된 문제는 단 하나—《우주 세기에 있어서 로케트의 발사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자는 동 협회 과학 서기장과 《포마크》식 로케트 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미국 본 항공기 회사의 고문이라는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경건한 기독교 신자》 헤리크리크.

많은 사람들이 보고에 근거하여 토론했는데 로케트 무기 제조로 거부를 쌓고 있는 독점 자본의 대표는 “왜 정부는 로케트 제조와 연구에 더 많은 예산을 배당하지 않는가?„라고 책상을 두들기면서 “롱탄„하였고, 유한 마담들로 조직된 전국 애견가 협회의 대표인 한 녀사는 “죄 없는 개와 토끼들의 생명을 로씨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해요! 불상해요, 개들이…„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고 결론 연설을 한 파쑈 단체 전 미국 퇴역 군인 협회 대표 코린스 중장은 “쏘련의 로케트 공세로부터 하느님의 안전을 보호하여 드릴 책임이 미국인에게 있으며 그 책임 리행의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되는 것은 쏘련을 박멸하는 것이다„라고 한바탕 전쟁 히스테리를 선동.

그리고 채택하였다는 결정이라는 것이 《쏘련의 빈번한 로케트 발사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신성 불가침이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쏘련을 박멸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미국에서의 핵 무기 생산과 로케트 생산이 대대적으로 증가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미친놈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전에 쏘련이 인공 지구 위성과 우주 로케트를 발사할 때에는 “쏘련을 따라 잡자!„라고 고아 대기도 하고 제법 작란'감 같은 로케트를 띄워 올리기도 하던 자들이 왜 이제 와서는 하느님의 “신성 불가침„에만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또한 미국 지배층 신사숙녀 제씨들에게 충심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도 당신들이 하느님의 “안전„과 “신성 불가침„이 걱정되거던 이 지구 우에서 떠들기만 하지 말고 그 하느님이 계시다는 저승에 하루 속히 올라가서 성심 성의 “보호„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

자살 행위



리 승만—북진 신호만 기다립니다.

박 승히 그림

리승만의 《건설 계획》

원 광수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568
발행 1959. 7. 23
(값 40 전)

전쟁 방화자의 《불길한 아침》

미제—으악! 목이 조인다! 오늘이 바로 정전 협정에 조인한 날이로구나 하느님 맙소서·····

백 인균 그림